

삼성 '갤럭시S2 HD LTE'

10월 대격돌

애플 '아이폰5'



10월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행복한 달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잇따라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루머에 불러온 LTE(LTE)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삼성의 '갤럭시S2 HD LTE'폰과 이름만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5를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또 국내 스마트폰 놀풍을 일으킨 아이폰3GS의 사용자들의 약정기간이 10월을 기준으로 만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느냐에도 관심이 쓰리고 있다.

최후 승자는



시양비교

	갤럭시S2 HD LTE	아이폰5(예상 스페)
네트워크	LTE(4G)	3G
디스플레이	4.65인치 슈퍼아몰레드	4.0인치 레티나
카메라	800만 화소	800만 화소
크기(가로×세로×두께)	69.6mm×130mm×9.5mm	62.4mm×120.9mm×6.2mm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iOS5
장점	전송속도(3G 보다 5배), 고사양 CPU	렉서리 디자인, 아이클라우드
출시	중순	4일 발표, 출시 예정

◆삼성 '갤럭시S2 HD LTE'=갤럭시S2 가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를 앞세워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옥 박작홀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자사의 첫 LTE 스마트폰인 '갤럭시S2 LTE'와 '갤럭시S2 HD LTE' 두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 공개한 갤럭시S2 HD LTE는 세계 최초로 '고화질(HD) 슈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제품이다. 이전 800×480화소(WVGA)를 지난 디스플레이보다 2.4배 뛰어난 해상도를 제공하는 1280×720화소를 지원한다. 화면크기도 '갤럭시S2' 및 '갤럭시S2 LTE' 보다 큰 11.8cm(4.65인치)인데다 영화관과 같은 16대 9 화면비율을 갖췄다. CPU도 기존 갤럭시S2 보다 향상된 1.5G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LTE 모뎀 칩을 추가하고 두께는 9.5mm, 무게는 142g에 불과하다. 배터리도 1850mAh의 대용량으로 향상시켰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동통신 3사

와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LTE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에 갤럭시S2 HD LTE의 성과가 달렸다. LTE는 기존 3G방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 1분에 음악파일(4MB) 138곡과 전자책(5MB) 110권, HD게임(90MB) 6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전국망이 갖춰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다. 지난 7월 SKT와 LGU+가 LTE 서비스를 시작했고, KT도 오는 1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정도는 돼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2개 시에 LTE망이 갖춰지고 2012년에 6월경이나 전국망이 갖춰질 예정이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LTE 요금제 문제도 소비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CPU는 아이폰4의 1GHz 싱글코어보다 업그레이드된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 A5를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면은 10.7cm(4.2인치)이나 두께는 더 얕은 6.2mm로 추정되고 무게는 112g 정도로 예상된다. 카메라는 800만 화소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이폰5의 핵심은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계인 'iOS5'다. iOS5에는 '아이클라우드'와 '아이메신저'가 기본 탑재될 전망이다. 아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개념의 서비스로 음악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해 놓고 사용할 때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5GB의 용량을 제공해 주며,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이폰5의 가장 큰 약점은 사양이다. CPU, 디스플레이 모두 갤럭시S2 HD LTE에 크게 못 미친다. 그리고 갤럭시S2 HD LTE와 달리 3G를 고집하고 있는 점이다.

아이폰5가 애플 마니아들을 얼마나 사로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스마트폰 이용자 61.5% '중독'

"없으면 불안" 20대·여성·영업직 종사자 많이 느껴

스마트폰 사용자의 60% 이상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관 트렌드모니터는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 평가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1.5% 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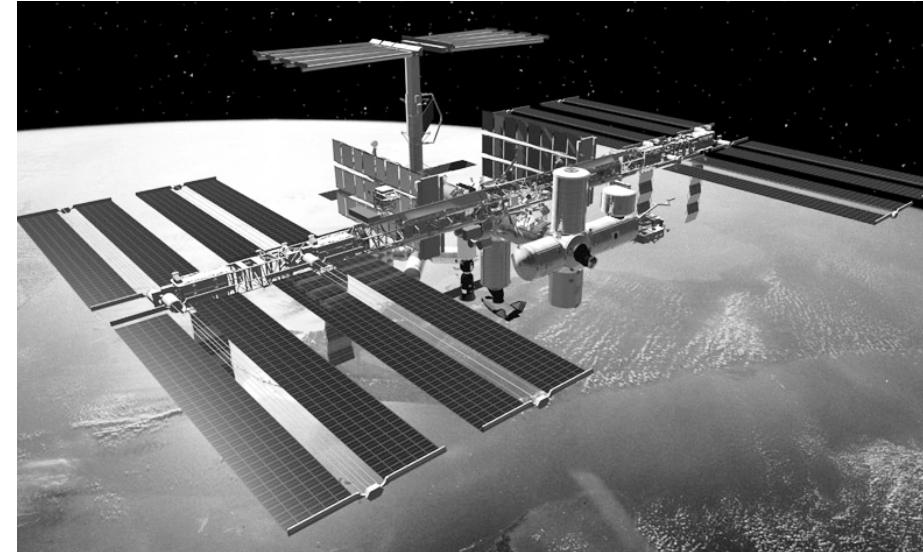
불안감은 남성(57.6%)보다는 여성(65.4%)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초반(55.5%)이, 직종별로는 판매영업직 종사자(70.1%)가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을 잘 때 손에 쥐고 자거나 낳기 쉬운 곳에 둔다"(46.1%),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불안하다"(62.6%),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친구를 놓은 것 같다"(40.6%) 등의 응답도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9.9%는 항상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고 늘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준비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우주정거장도 머지않아 추락”

2028년까지 가동…NASA 통제로 파편 위험 없어



지난 24일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측되는 67짜리 인공위성이 전세계의 많은 사람을 긴장시켰지만 이보다 수십배나 무거운 국제우주정거장(ISS)도 머지 않아 같은 운명을 밟게 된다고 스웨이스 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미항공우주국(NASA) 관계자들에 따르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관계자들은 대기권상부관측위성(UARS)이 궤도를 이탈해 인위적 개입 없이 지구에 추락한 것과 달리 ISS는 NASA의 통제 아래 추락에 파편이 면바다에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했다.

ISS 프로그램 부책임자 커크 셔먼은 "우리는 많은 연구 끝에 제어할 수 있는 궤도와 속도 수정 범위를 밝혀냈다. ISS의 파편은 사람이 없는 바다에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UARS의 무게는 약 6.5t이며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소멸하지 않고 추락한 것이 약 530kg로 추정된다. 한편 최소한 오는 2020년까지, 어쩌면 2028년까지 가동될 ISS의 면적은 축구장 정도이며 무게는 43t이나 된다.

이런 ISS가 그대로 지구에 추락한다면 UARS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협이 될 것이다. 문명이다.

그러나 NASA는 비슷한 국제 우주 닉슨은 수명이 다하면 그대로 우주 공간에서 표류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ISS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1년 전부터 궤도를 정상고도인 386km에서 서서히 낮추게 된다. 또 ISS가 워낙 거대해 자력으로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인 우주선을 도킹시켜 조작하게 된다.

이런 마지막 작업에 동원될 우주선이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프로그레스나 유럽자동운반선(ATV), 현재 개발 중인 NASA의 오리온과 목적우주선(MPCV)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ISS의 승무원들은 고도가 너무 낮아지기 전에 정거장을 떠나게 된다. ISS의 고도가 185km까지 내려가면 지상 관제요원들은 도킹 상태의 우주선을 조작해 고도를 점차 낮추면서 점진적으로 연소시키게 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ISS는 지구 대기권을 향해 곤두박질 치며 불타 없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 '이앤비소프트' 대만 진출

중화텔레콤, 친환경 앱·광고 플랫폼 도입키로



및 마케팅 사업화를 책임지기로 동의했다.

조수현(주)이앤비소프트 중국지사장은 "중화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는 친환경 IT부문과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시기와 맞물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며 "순수 국내 특허 기술로 향후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이앤비소프트는 광주 과하고 14개 동문들이 설립한 회사로, '핫 도구' 앱은 컴퓨터에 있는 정보나 자료를 중앙에 프린트하지 않고 무료로 모바일에 프린트하

는 그린IT 기술이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인도네시아텔롭과 계약을 체결하고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인 (주)이앤비소프트(대표 배효환)가 그린IT 기술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다.

주)이앤비소프트는 지난 16일 대만 최대 통신회사인 중화텔레콤 부사장과 텔레마케팅 부분 1위 기업인 그랜시스(Grandsys) 임원들이 회사를 방문, 친환경 모바일 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핫 도구'(HOT DO-

상업용지·주차장용지·이주주택지·협의자택지

전국 혁신도시 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3153-4242

010-2609-5888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대표전화 010-3180-9211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대표전화 010-511-6633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동명공인중개사

【수익성 높은상가 매매】

- 서구 상가건물 5800㎡ 매매가 60억원(율34억원)
- 직영문영시 연간수수익 8억원(현수유자와 공동투자)
- 서구 상무지구 상가대지 230㎡ 건물2300㎡ 보증금 3억원, 월 3300만원 매매가 45억원
- 광주 첨단지구 상가대지 963㎡ 건물 1000㎡ 신축건물 입점점포상업형 매매가 17억원
- 광주 첨단지구 상가대지 482㎡ 건물 911㎡ 보증금 3억, 월 800만원 매매가 145억천만원
- 상가대지 327㎡ 건물 897㎡ 보증금 1억 월 550만원 웃자 4억 매매가 9억

【전문식당 매매】

- 최고위치 주변경관수려 2층신축건물 373㎡ 주차장인비
- 장애인 전문점 최적합 현성업종. 일매출400만원 (주)밀도 600 매매가 9억원

【고시원매매】

- 옹동동 대지 310㎡ 건물 618㎡(65실)
- 월수입 1,200만원 웃자 397천, 매매가 7억7천만원

【모텔매매】

- 대지 561㎡ 건물976㎡(33실) 성업중 최고상권 및 독점상권 매매가 19억원 (웅진9억원)

【토지매매】

- 광산구 수완지구 자연녹지지역 신설도로 8차선 부근 - 대지 : 15,000㎡ 매매 39억원(물류센터 등 적합)
- 전 : 5,140㎡ 매매 15억천만원(물류센터 등 적합)
- 서구 농성동 교차로 부근 주중가지역 8차선 대로변 - 대지 : 2,221㎡ 매매가 25억원(병원, 교회 등 적합)

【부동산 구함】

- 상가건물 등 부동산 구함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매

- 전북 순창군 북하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 지 : 10980㎡, 농지 : 1397㎡
- 开发利用면 37평, 37평, 키로미터 10평형 17개동 관리동1, 각각 독립형 주차장원비, 수려한 치자수비, 기도설정 및 여수대지면을 계획되었음
- 매매가 : 13억(국지당3억) 예상포함

모델 매매

- 전라남도 여수시 융산면 월산리
- 대 : 지 : 1039㎡, 농지 : 1039㎡
- 지하1층+상층 37평, 29평, 엘리베이터 있음 유통신단입구
- 매매가 : 1억5천만원

토지 매매

- 광주광역시 북구 청룡동 북구청IC 부근 생활신도
- 대 : 지 : 262㎡ 세종동반주지역 일원 편리, 접근성 좋음
- 매매가 : 1억5천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동 북구청IC 부근 생활신도

- 대 : 지 : 210㎡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상경비 좋음
- 매매가 : 1억2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무장면 팽자리

- 대 : 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상경비 좋음
- 매매가 : 1억3천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청룡동 청룡동 1동 310㎡